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태 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식물문양의 양각장식을 이용한
테이블웨어 연구

- 조선자수(刺繡)에 나타난 문양을 중심으로 -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소수신

식물문양의 양각장식을 이용한
테이블웨어 연구

- 조선자수(刺繡)에 나타난 문양을 중심으로 -

박 태 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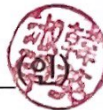
공예학과


소수신


인 준 서

소수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11월

심사위원장 한 영 숙 

심 사 위 원 김 지 관 

심 사 위 원 박 태 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연을 모티브로 풍부한 상상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문양들을 창조해왔다. 조선시대의 규방공예품에서도 이러한 다채로운 문양 장식들이 보여지며 그 내면에는 여성들의 삶의 애환과 사회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표현은 해학성이라는 조형적 특질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이외에도 자수에서 보여지는 바느질과 그 흔적으로 남은 땀의 형태는 문양의 영역을 구분하는 실질적 역할 외에도 조용히 도드라진 작은 볼륨감에서 소박한 조형적 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조형 표현 요소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자수의 문양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미감과 특성에 주목하였고 이를 도자장식기법으로 활용하여 테이블웨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수의 문양장식에 나타나는 문양의 특성과 의미를 문헌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도자테이블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문양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조선 자수의 문양화를 통한 효과적인 장식표현기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각기법에 의한 양각 장식을 선택하였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석고기법에 의한 기형(器形)제작과 유약에 의한 드로잉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유약에 의한 드로잉에 있어 색유의 조합 실험과 착색을 위한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도구 및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일련의 문양화 과정과 양각장식 및 유약드로잉이라는 장식표현방법을 통하여 개성있는 도자테이블웨어를 제안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II. 본론	3
1. 조선 자수	3
1) 자수의 분류	3
2) 궁수와 민수	7
2. 표현방법과 적용	11
1) 문양화 과정	11
2) 양각화 과정	20
3. 시작품 제작	26
III. 결론	37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용도에 따른 자수의 분류	4
【표 2】 궁수(宮繡) 및 민수(民繡)의 분류	9
【표 3】 자수 유물의 종류 및 의미	12
【표 4】 자수 유물의 조형성	14
【표 5】 문양화 단계별 과정	15
【표 6】 문양화 과정	15
【표 7】 몰드에 의한 양각화 제작과정	21
【표 8】 사용 도구 및 효과	24

그림 목 차

【그림 1】 (좌)쌍학흉배, 문관당상관의 단령흉배,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우)활옷, 조선, 서울공예박물관	5
【그림 2】 (좌)안경집, 조선후기,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우)자수귀주머니, 조선, 서울공예박물관	6
【그림 3】 (좌)덕온공주 홍장삼 수분,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우)전안보(奠雁褙), 조선후기,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10
【그림 4】 한색 계열 유약시편	22
【그림 5】 색 조합 유약시편	22
【그림 6】 유약 시편_부분	23

시작품 목차

【작 품 1】 여뀌문양이 담긴 합	26
【작 품 2】 모란 문양 개완 세트	27
【작 품 3】 모란문양 컵과 접시 세트	28
【작 품 4】 열매 문양 찻잔 세트	29
【작 품 5】 양귀비 문양 접시 세트	30
【작 품 6】 수박 문양 사각접시	31
【작 품 7】 소국 문양 저그 세트	32
【작 품 8】 사랑초 문양 보울	33
【작 품 9】 나팔꽃 문양이 담긴 화병	34
【작 품 10】 매미꽃 문양 찻잔 세트	35
【작 품 11】 개화	36

I. 서 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자연은 무한한 예술적 소재이며 그 중 식물은 과거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이런 이유로 식물은 많은 미술품이나 장식용품에서 추상 또는 구상적 표현의 소재로서 애용되었으며 우리 전통예술분야에 있어서도 그 활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조선 시대 생활 전반에 사용되었던 규방공예품 중 자수에서 보여지는 식물의 문양은 매우 독특하며 조형적 독창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된다.

문양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자수는 사용계층에 따라 표현방식과 품격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바느질과 땀¹⁾의 조형적 특질이 뚜렷하게 느껴진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도드라지지 않는 조용한 땀의 형태는 각 문양의 경계가 되기도 하며 그 자체가 하나의 조형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또한 땀의 경계 속에 자리한 문양의 내부공간은 사용계층에 따라 고상한 색상이나 화려한 색상 등 나름의 이유 있는 색상들로 채워져 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자수에서 보여지는 땀의 형태와 색상은 예술적 표현 또는 공예의 장식적 표현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수의 조형성에 주목하고 특히 자수의 땀에서 보여지는 양각의 형태와 질감을 활용하여 도자 장식 표현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자수의 땀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특질을 도자 장식 기법의 요소와 접목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자 테이블웨어를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도자 표현기법과 구체적인 제작공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1) 바느질할 때 실을 켜 바늘로 한 번 땀. 또는 그런 자국, 표준국어대사전

2. 연구 방법

조선 자수의 문양 이미지를 활용한 도자 장식연구는 조선 자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화 시킨 장식 이미지의 고찰과 이를 도자기 소재에 적용시킬 수 있는 표현방법이 요구된다.

먼저 조선 자수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는 문헌을 근거로 자수의 분류를 표로 정리하고 각 문양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주된 사용계층과 제작자에 따라 달리 제작되는 자수품을 크게 궁수(宮繡)와 민수(民繡)로 나누어 각각의 예술적 및 조형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자수 기법의 외형적 특징을 응용하여 도자기에 이미지화시키기 위하여 ‘문양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문양화 과정의 방법으로서는 조선 자수의 유물과 이에 영향을 준 민화를 대상으로 주제에 적합한 모티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간략화와 특징화를 통해 제작된 문양을 도자기의 형태에 적합한 구도로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문양 이미지를 도자기에 적용하기 위하여 자수의 땀을 통해 나타나는 입체의 이미지를 도자의 양각 장식 기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양각 장식의 효율적 사용과 안정된 표현을 위한 조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조각 장식의 의미와 특징을 뚜렷이 하기 위한 색상 조합에 대해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색 유약의 실험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및 시유 방법에 대해 실험을 통한 구체적인 장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하여 조선 자수에 의한 문양화 과정과 양각 장식을 통한 도자 장식 표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조선 자수(刺繡)

1) 자수(刺繡)의 분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도구들은 일정 수준의 기능성을 충족시키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장식적 요소 또는 감정이입을 통해 아름다움이나 사유(思惟)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장식적 요소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소재로서 내적 표현 내지는 문양에 담긴 스토리를 전하기도 한다. 이런 상징적인 소재와 장식적 표현기법은 조선시대 자수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자수는 기본적으로 중국 견직물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세련된 기술보다는 개개인의 표현방식을 존중하고 발전시켰으며 민화와 마찬가지로 동심과 해학의미를 잘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는 장식기법이 돋보이는 자수가 성행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민화에서 사용된 문양 또는 그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수는 빈부와 계층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여가생활이었으며 바깥 활동이 적은 여성의 삶과 애환의 표현 방식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타의반 자의반으로 각자의 미의식을 가진 채 자수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수는 용도에 따라 크게 복식(服飾)자수, 생활자수, 감상(鑑賞)자수, 불교자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 용도에 따른 자수의 분류

복식 자수	의복에 새겨진 자수 (당의, 활옷, 흉배 등)		
		당의	무관흉배
생활 자수	생활용품에 새겨진 자수 (보자기, 베갯모, 주머니, 노리개, 굴 레, 땡기 등)		
		수혜(신발)	귀주머니
감상 자수	감상용으로 만들어진 자수 (자수 병풍, 회화자수)		
		자수 화조도 병풍	자수 종정도 병풍
불교 자수	불교의식에 사용된 자수 (다라니주머니, 탁의, 불경덮개 등)		
		일원수 다라니 주머니	‘상궁청신녀’명 연화봉황문 방석

복식자수는 의복에 수를 놓은 것으로 크게 궁중복식과 일반복식으로 나눌 수 있다. 궁중복식은 왕족을 비롯한 지배계층이 입는 공복(公服)²⁾이나 예복으로

2) 명사, 삼국 시대부터 관원(官員)이 평상시 조정(朝廷)에 나아갈 때 입던 제복. 신라 진덕 여왕 2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였고, 왕의 대례복(大禮服)³⁾을 비롯하여 왕세자, 비빈, 왕녀 등이 입는 갖가지 예복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 서민들이 입던 일반 복식은 재래의 전통의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림1】 (좌) 쌍학홍배, 문관당상관의 단령홍배,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우) 활옷, 작자미상, 서울공예박물관

자수가 들어가는 복식은 보통 예복이나 혼례복과 같이 특별한 날 입는 복장이거나 홍배나 보와 같이 권력과 계급을 나타내는 용도이다. 따라서 【그림1】의 좌측에 나타나는 홍배와 같이 품계마다 정해진 구성 요소가 있으며 최대한 장식성을 표현한 자수가 많았다. 우측의 활옷⁴⁾에서 알 수 있듯이 복식자수에서는 매우 화려한 문양과 색채를 사용한 것들이 많았다.

활옷같은 경우엔 특별한 양식적 요소가 있지는 않지만 길상의 뜻을 가진 문양들을 최대한 많이 장식하여 부부의 앞날을 축하하는 축하용 복장의 의미가 있다. 일반복식에서 이와같은 활옷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며 보통 민간의

년(648)부터 착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곡령(曲領)에 소매가 넓은 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활(笏)을 들었다. 표준국어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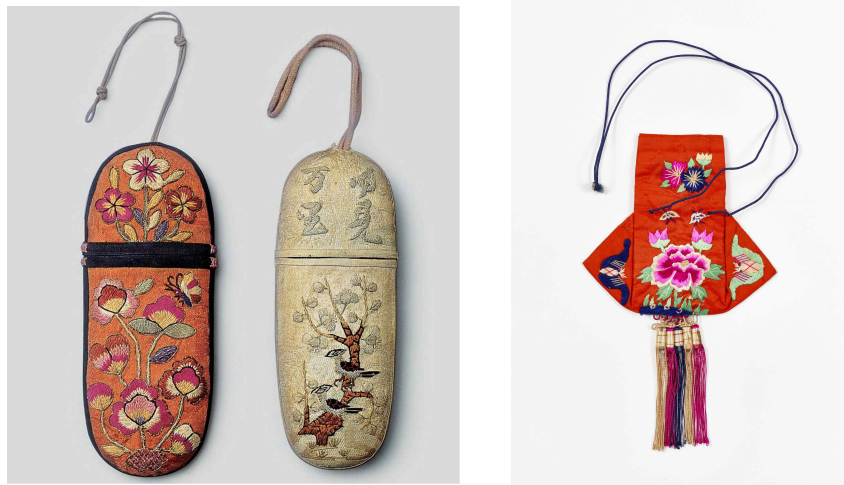
3) 나라의 중대한 의식이 있을 때 벼슬아치가 입던 예복, 표준국어대사전

4) 전통 혼례 때에 새색시가 입는 예복, 표준국어대사전

평상복에는 유지관리가 힘들어 자수를 놓진 않았다.

생활자수는 실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에 놓은 자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규방공예라고도 한다. 생활자수의 주된 제작자인 여성들은 사용자의 행운과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문양들을 자수로 새겨넣었으며 종류로는 어린아이가 쓰는 복건, 쾌자, 타래버선 등과 악세서리로 사용하는 땡기, 노리개, 물건을 싸는 보자기, 주머니, 침실용품인 베갯모, 방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생활자수에 나타나는 문양은 보통 우리 삶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이나 동물을 중점적으로 넣었다는 특징이 있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식물의 이미지를 활용한 만큼 서민적이고 소박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2】 (좌) 안경집, 작자미상, 조선후기,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우) 자수귀주머니, 작자미상, 조선, 서울공예박물관

【그림2】의 생활 자수에서는 간결하고 소박한 이미지의 문양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악세서리의 기능을 하기도 했던 규방공예품의 주 사용자층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꽃 이미지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감상자수는 실사용의 용도보단 단순히 감상의 목적으로 예술성이 돋보이는 자수 작품들이며 대표적으로 자수 병풍(屏風)을 들 수 있다. 자수 병풍의 소재는 거의 회화 소재와 유사하며 조선시대에 발달한 민화와 비슷한 유형을 띤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여러 폭의 자수가 한 세트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금까지 전해진 자수 병풍 중엔 신사임당의 ‘초충도’, 인현왕후의 ‘신선도’ 등이 유명하다.

불교자수는 주로 신앙심이 돈독한 여자 신도나 비구니가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제작한 자수 용품이다. 일반적으로 제작자와 제작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여타 자수 공예품과는 다르게 불교자수는 제작자에 관한 명문(銘文)⁵⁾이 있고 간지(干支)의 내용을 표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작 시기를 확인하기 쉽다는 큰 특징이 있다.

이와같이 조선시대의 자수에는 각 계층의 생활상이 반영된 문양과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독특한 질감의 바느질과 실의 조화가 어우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자수에서 보여지는 문양의 시각적인 요소만이 아닌 촉각적인 질감의 느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조형적 요소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궁수(宮繡)와 민수(民繡)

조선 자수는 크게 궁중에서 사용할 물품을 제작하는 궁수(宮繡)와 사대부 이하의 민간에서 만들던 민수(民繡)로 구분된다. 궁수는 궁중 자수의 줄임말이며 제작자는 궁궐 소속의 궁녀로 육처소(六處所)⁶⁾에 속한 침방(針房), 수방(繡房) 그리고 실을 꼬는 고얏방과 같은 곳에 소속되어있었다. 소속이 구분될 정도로

5) 금석·기물 따위에 새겨 놓은 글, 표준국어대사전

6) 조선 시대에, 궁중의 안살림을 나누어 맡은 여섯 부서. 침방(針房), 수방(繡房), 세수간(洗水間), 생과방(生果房), 소주방(燒廚房), 세답방(洗踏房)을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

작업 효율화를 위한 분업화가 진행되었으며 체계화된 구조로 세밀한 자수품이 제작되었으나 다소 격식화된 것이 특징이다. 궁수(宮繡)에 나타나는 문양의 표현은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고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세분화된 실 색상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농담 표현이 특징이다. 민수(民繡)에 비해서 채도와 명도 차이가 크지 않은 자연스러운 배색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끈사⁷⁾를 사용하였고 민간에서는 구하기 힘든 금사와 은사의 사용도 많았다.

이와 달리 민수(民繡)는 보통 민간의 부녀자들이 제작자이며 문양의 표현 또한 자유롭고 추상적인 묘사가 많았다. 세련된 기술력을 가진 궁수(宮繡)보다는 거칠고 즉흥적이나 개인의 표현 방식을 존중하고 발전시켰으며 비슷한 시기에 성행한 민화와 마찬가지로 동심과 해학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문양은 보통 색상의 구획이 확실히 나뉘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한 명의 제작자가 모든 과정을 도맡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실의 염색이나 실 꼬기 등을 지양하였다. 이런 이유로 적은 색상의 실을 활용해 자수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강한 배색이 나타나고 실의 사용 또한 준비 과정이 간단한 끈사⁸⁾의 사용이 많았다. 이와같이 궁수(宮繡)와 민수(民繡)에서 보여지는 표현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한 도표는 【표 2】와 같다.

궁수(宮繡)는 궁중 화가인 화공들이 밑그림을 그려주는 등 도안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있으며 민수보다 체계적이고 회화적인 표현이 주된 특징이다.

【그림3】의 자수본을 보면 궁수(宮繡)의 회화적인 구성이 두드러진다. 문양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대칭적인 표현도 존재는 하지만 눈에 띄는 특징은 아니다.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된 꽃의 모양과 비례에서 궁중 자수의 세밀함과 표현력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제작과정 대부분이 분업화되어있어 각 공정이 전문적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장식의 미숙함에서 느낄 수 있는 수공예적인 느낌이 부족하고 도식적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7) [끈絲], 명주실을 꼬아 만든 실 (표준국어대사전)

8) [끈絲], 고치를 켜 그대로 꼬지 아니한 명주실, 여러 색을 물들여 수를 놓는데 쓴다. (표준국어대사전)

【표 2】 궁수(宮繡) 및 민수(民繡)의 분류

	궁수	민수
제작자	궁궐 소속 제작자 (침방針房, 수방繡房, 고얏방 소속)	민간 제작자
문양의 표현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 격식화된 표현	해학성을 가진 자유로운 표현, 추상적인 느낌
색상의 표현		
	자연스러운 농담표현, 자연스러운 배색	색상의 구획이 확실함, 강한 배색
실의 사용	끈사를 사용, 다양한 색상의 실, 금사, 은사 사용도 많음	보통 끈사를 사용, 색실의 선택폭이 좁음
문양 배치		
	회화적 표현	문양적 표현



【그림3】 (좌)덕온공주 홍장삼 수분, 작자미상,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우)전안보(奠雁褙), 작자미상, 조선후기,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그림3】의 전안보(奠雁褙)는 결혼식에서 기러기를 감싸는 보자기 용도로 사용되는데 여기에 사용된 문양을 보면 궁수(宮繡)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민수(民繡)에서는 전안보(奠雁褙)의 띠 부분에 새겨진 초화문같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에서 예술성을 찾아 장식적으로 활용하였다. 궁수(宮繡)에서 느낄 수 있는 회화적이고 세밀한 기술력은 부족하나 장식의 미숙함과 단순성에서 수공예적 느낌을 느낄 수 있다. 각각의 띠에 나타나는 초화문의 강한 색채 차이와 대칭적 구조에서는 화려하지만 소박한 느낌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이 민간과 궁중의 제작자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자수 표현 기법의 차이는 조선시대 자수의 다양성을 폭넓게 보여주고 상호작용을 하여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궁수(宮繡)에서 나타나는 고급스럽고 세밀한 표현의 조형적 특징은 나름의 충분한 조형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은 민수(民繡)의 자수 문양 전반에서 보여지는 인간미와 이를 표현한 한국적 해학성이며 이러한 요소는 조형 표현에 있어 매우 유리한 소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민수의 조형적 특질을 문양화 및 장식 전반에 활용하고자 한다.

2. 표현방법과 적용

1) 문양화 과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궁수(宮繡)와 민수(民繡)에서 보여지는 특징과 미감은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준다. 특히 민수(民繡)의 해학적이며 모던한 느낌의 문양적 느낌은 궁수(宮繡)에서 보여지는 스토리 중심의 회화적 표현보다는 친근감과 디자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민수(民繡)에서 보여지는 문양적 요소는 장식적 소재로서의 가능성과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상징적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당시 부녀자들의 애뜻한 소망과 투박한 삶의 단편을 뚜렷한 윤곽의 문양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고도의 예술성마저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민수(民繡)에서 보여지는 문양을 소재로 하여 도자테이블웨어에 적합한 도안을 디자인하였다. 문양에는 시대적 유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약속된 각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를 조형 언어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상징적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표 3】은 민수(民繡) 문양에서 보여지는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다.

【표 4】는 【표 3】을 근거로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민수(民繡)의 문양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특징을 크게 단순성, 추상성, 과격적 구성으로 분류하여 도표로 정리하였다.

【표 4】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민수(民繡)의 문양 중 일부는 실제의 소재보다 생략된 디테일과 평면적 표현으로 단순성과 강한 추상성을 띄고 있으며 본래의 형태를 상상하고 싶게 만드는 재미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표 3】 자수 유물의 종류 및 의미

		의미	유물 사진	
1	연꽃	생명의 창조, 번영	 (애기굴레_부분,조선)	 (자수 '상궁청신녀'명 연화봉황문 방식,조선)
2	모란	행복의 상징	 (자수 귀주머니_부분,,조선)	 (주머니,조선후기)
3	불로초	수복장수	 (귀주머니,조선)	 (운봉수 향낭_부분,조선)
4	매화	순결과 절개,건강	 (매화도 자수 병풍,양기훈,조선)	 (자수귀주머니_부분,조선)

		의미	유물 사진	
5	국화	길상,고상함,품위와 장수	 <p>(자수 화조도 병풍_부분,조선)</p>	 <p>(초충수병,국화와 벌_부분,16세기)</p>
6	소나무	유교적 절의와 지조, 탈속과 풍류, 장수	 <p>(귀주머니_부분,조선)</p>	 <p>(자수 화조도 병풍_부분,조선)</p>
7	석류	다산기자	 <p>(전복_일부,조선후기)</p>	 <p>(자수 화조도 병풍_부분,조선)</p>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과 같은 형상의 미숙한 도안에서는 해학성마저 느껴진다. 그리고 실제의 비례와는 다른 과격적인 대칭적 구성을 통하여 본래의 형태에서 벗어나 창의적 형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과 구도는 대칭인 듯 하나 미묘하게 다르게 배치되어 문양 표현의 재미를 더하고 자수의 수공예적인 느낌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민수 문양만의 독특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자수 유물의 조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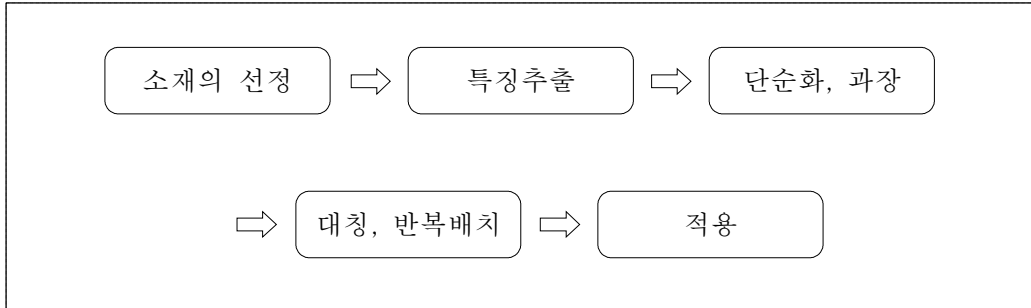
	단순성, 추상성	미숙함	파격적 구성
자수 유물			
	자수 단추	귀주머니_부분	수저주머니_부분
			
	자수 단추	전복_부분	보자기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자수 문양 중 도식화하기 쉽고 상징성을 띄는 식물 소재를 통해 문양 이미지를 구체화하였다.

문양화 과정에선 실제 자수 유물에 적용된 소재를 참고하였으나 자수의 특성상 보존 유물의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수 문양의 주된 모티브였던 민화의 문양 또는 그림을 활용하여 도안을 제작하였다.

민수(民繡)에서 나타나는 해학성, 추상성을 느낄 수 있게 각 식물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더욱 강조하고, 간략화를 시켜 문양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자수 도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대칭적이고 반복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문양화 과정은 크게 [소재의 선정 → 특징추출 → 단순화, 과장 → 대칭, 반복적 배치 → 적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표 5】 참조)

【표 5】 문양화 단계별 과정










【표 6】은 구체적인 문양화 과정 및 테이블웨어에 적용한 문양 배치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문양화 과정

	참고유물	모티프 추출	도안 재배치	적용
모란 (1)				
<p>주머니에 장식되어있는 모란 문양이 주된 특징이다. 문양은 주머니 하단의 유선형 라인을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구도는 대칭적으로 펼쳐져 전개되고 있다. 구도와 문양을 참조하여 위의 도안을 재배치하였으며 주로 잔받침 등에 적용하였다. 잔받침의 곡선형 라인을 따라 대칭적으로 문양을 구성하여 형태에 맞게 제작하고자 하였다.</p>				

	참고유물	모티프 추출	도안 재배치	적용
모란 (2)				
<p>주머니의 모란문양 중 중앙부 상단에 완전히 개화되지 않은 봉우리를 모티브로 삼아 문양화하였다.</p> <p>유물에서 보이는 대칭적 구도를 참조하여 개완과 타원접시 등에 대칭적 구도 또는 분산의 형태로 배치하였다.</p>				
나팔				
<p>민간에서 제작된 자수들은 정확한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없는 유물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제작자가 어떤 꽃으로 도안을 제작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수의 형상을 보고 임의로 꽃을 지정하여 참고하였다. 주머니 유물에서 중앙 부분에 위치한 꽃을 나팔꽃의 모티브로 삼아 문양화하였다. 유물에서 보이는 확실한 색상의 경계를 도안에 적용하였으며 대칭, 반복적 구도로 배치하였다.</p>				

	참고유물	모티프 추출	도안 재배치	적용
열매				
<p>보자기 유물에서 나타나는 식물 문양의 일부에서 열매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삼아 문양화하였다. 보자기 유물의 구도를 참고하여 열매와 잎의 구성을 대칭으로 표현하였으며 작품의 기형에 맞게 곡선형으로 문양을 적용하였다.</p>				
양귀비				
<p>신사임당의 초충도 8폭병풍 중 양귀비와 도마뱀 그림을 참고한 양귀비 문양화 과정이다. 회화구도로 표현되어있는 양귀비의 꽃과 꽃잎을 간략화하여 모티프로 사용하였고, 문양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양쪽으로 대칭 구성하였다. 또한 대칭화된 문양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곡선형의 접시를 디자인하여 장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p>				

참고유물		모티프 추출	도안 재배치	적용
여 뀌				
<p>신사임당의 초충도 8폭 병풍 중 여뀌와 사마귀를 참고한 문양화 과정이다. 초충도에 나타난 여뀌의 형태 중 유려한 곡선으로 표현된 줄기와 덩어리로 표현된 빨간 꽃부분을 참고하여 도안을 제작하였고 이를 대칭으로 구성하여 문양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 원통형 합을 제작하여 여뀌문양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다.</p>				
수 박				
<p>신사임당의 초충도 8폭 병풍 중 수박과 들쥐를 참고로 제작한 도안이다. 회화적 구성으로 제작된 병풍 중 동그란 수박과 굴곡이 많은 잎의 특징을 활용하여 문양화하였고 덩굴식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곡선형의 줄기를 대칭, 반복 구성하여 적용하였다.</p>				

참고유물		모티프 추출	도안 재배치	적용
국 화				
<p>초충수병에서 나타나는 자수 국화 이미지를 참고하여 문양화하였다. 작은 잎이 모여 덩어리를 이루고있는 꽃의 이미지를 단순화시켰으며 잎의 크기를 키워 구도적으로 도자기 안에 안정적으로 배치되게 하였다.</p>				

2) 양각화 과정

자수 작품은 바느질의 특성상 일반 회화작품과는 달리 약간의 입체감이 느껴지는 부조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것은 작품을 손으로 만졌을 때 미세한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작자가 작품을 위해 할애한 시간과 정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이 손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제작자와 향유자 사이의 예술적 교류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도자 표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수에서 나타나는 부조의 느낌을 도자로 표현할 때는 양각 장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자수와 유사한 양각 표현을 위한 제작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양을 양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형(器形)의 제작 기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량 생산을 전제로 하는 캐스팅 기법의 경우 원형에 문양을 양각화 하는 작업을 선행해야만 하며 물레기법의 경우는 성형 후 기물에 수작업에 의한 양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작업의 효율성과 양각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특히 캐스팅 기법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캐스팅 작업의 경우 보통 석고 원형에 문양을 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본 작업에서는 사용형 몰드에 직접 문양을 음각으로 조각함으로써 성형 기물에는 반대로 양각 문양이 새겨지는 방법을 택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복잡한 문양을 안정적으로 양각화 할 수 있었으며 작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

캐스팅 몰드에 새긴 양각화 제작 과정은 [원형 제작 → 몰드제작 → 몰드에 드로잉 도안작업 → 조각도를 활용한 음각장식 → 건조 → 캐스팅 → 초벌 → 색유를 활용한 장식 → 재벌]로 이루어지며 제작공정은 【표 7】과 같다.

【표 7】 몰드에 의한 양각화 제작과정

원형 제작	몰드 제작	몰드에 드로잉
		
몰드에 음각장식	캐스팅	탈형 후 건조
		

물레성형에 의한 양각 작업은 기물마다 수작업으로 문양의 조각에 의한 양각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효율성은 떨어지나 수작업에서 보여지는 조형미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물레성형의 특성상 기형의 단단함과 실용성 높은 테이블웨어를 제작할 수 있었다.

작업공정은 [성형 → 건조 → 굽깎기 → 반건조 기물에 문양 옹기기 → 조각도를 활용한 조각 → 완전건조 → 소성]으로 이루어진다.

기형(器形)은 양각 장식 요소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굴곡이 많지 않고 단순화된 외형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양각화 작업은 구체적인 형상에 의한 다양한 문양의 디자인이 가능하나 양각을 강조하거나 도자기 특유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각에 어울리는 색채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조각에 의한 양각 문양은 유약을 발라 소성하였을 때 조각 표면 높낮이 차이에 의해 유약의 고임 정도가 달라지게되며 이로인해 자연스러운 농담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색유를 사용하면 다채로운 색상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 본 작업에서는 도자 특유의 색감과 민간 자수에서 느껴지는 밝고 경쾌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색채 표현방법으로서는 유약에 고화도 안료를 섞어 한색 및 난색계열의 색유를 제작하였으며 이것을 양각화 문양에 채색하여 문양의 색감을 표현하였다.

이 경우 문양의 배경에 입히는 유약의 색상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그림4】와 같이 배경에 들어가는 색유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어울릴 수 있는 양각 문양에 채색할 색유를 제작하였다.

이 외에 색유의 조합에 의한 양각 문양의 색채 디자인을 위해 【그림5】와 같이 양각화된 꽃문양에 다양한 색조합 실험을 통해 특유의 색감을 지닌 양각 조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4】 한색 계열 유약시편



【그림5】 색 조합 유약시편

색상 조합에 의한 문양 표현에 있어 주된 방법은 유약을 이용하였기에 이에 적합한 유약 시유 및 채색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배경 전면에 시유하는 과정 속에 문양에 입힌 색유가 훼손될 위험이 높기에 각 색유를 고정 위치에 안전하게 시유하는 방법을 고려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표 8】 과 같이 세 가지의 채색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공정에 있어 장단점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양의 각 요소에 색상을 입히는 주요 도구는 라텍스, 에어브러시, 채색 붓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라텍스에 의한 영역분할과 에어브러시와 채색 붓을 사용해 색유를 시유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6】 의 문양의 경우는 빨간색유, 녹갈색색유를 붓으로 채색한 후 그 위에 라텍스를 바르고 배경에 들어가는 투명유를 담금시유를 함으로써 각각의 색상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참고로 이 방법은 【표 8】 의 ③번 (채색붓 + 라텍스)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위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안정된 색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6】 유약 시편_부분

【표 8】 사용 도구 및 효과

	도구	효과
<p>①</p>	 <p>라텍스</p>	
	<p>먼저 꽃문양의 양각장식 위에 라텍스를 바른 후 담금시유를 통해 배경에 유약을 입힌다. 이후 라텍스를 제거한 후 양각장식을 제외한 배경에 라텍스를 바른 후 빨간색유를 시유한다. 이때 줄기와 잎부분도 라텍스를 발라 빨간색유의 침투를 막는다. 마지막으로 배경과 빨간색유 부분에 라텍스를 바르고 녹색유를 시유하여 완성한다. 이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p>	
<p>②</p>	 <p>에어브러시 + 라텍스</p>	
	<p>이 방법은 라텍스 바르는 방법과 순서는 위의 방법①과 동일하며 단지 시유방법으로서 에어브러시를 사용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방법①보다는 효율성이 있으나 에어브러시에서 나오는 바람의 압력으로 인하여 유약 위에 바른 라텍스의 탈락이 쉽다는 것이 문제이고 육안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유약의 두께감 때문에 각 문양에 알맞은 유약의 농도를 일정하게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p>	

		
③	채색붓 + 라텍스	
<p>먼저 꽃문양에 노란색유와 줄기, 잎부분에 녹색유를 채색붓을 사용하여 유약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바른다. 이후 색유를 바른 꽃문양에 라텍스를 바른 후 배경에 투명유, 또는 색유를 시유하여 완성한다. 이 방법은 라텍스의 도포과정도 한번에 끝나며 채색붓으로 다양한 색상을 칠할 수 있기에 매우 효율적이며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p>		

이상, 양각화 과정에 있어 조각과 색채의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작업에서는 문양의 양각화에 있어 기존 방법과는 달리 사용 몰드에 조각을 함으로써 세밀한 표현의 양각문양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색채구성 및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색상의 유약을 사용함으로써 유약에 의한 장식표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시작품



【작 품 1】 여뀌문양이 담긴 합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색유, 산화소성
Ø100x49(h)mm, 135x49(h)mm

신사임당의 초충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뀌 그림 중 유려한 곡선과 텅어리진 꽃의 특징을 단순화시켜 문양으로 새겨넣었다. 곡선형의 줄기를 통해 생동감을 주기 위하여 완만한 곡선을 가진 문양을 횡렬로 반복적 배치를 하였고 원통형 합에 백색의 배경 유약을 사용하였으며 문양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채도가 높은 녹색유와 보라색유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작 품 2】 모란 문양 개완 세트

백자토, 물레성형, 슬립캐스팅, 투명유, 색유, 산화소성
Plate 250x100x15mm, cup \varnothing 88x80(h)mm, \varnothing 76x65(h)mm

행복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된 모란을 모티브로 한 개완 세트를 제작하였다. 단독형의 모란 문양을 대칭적으로 구성하여 장식성을 주었다. 잔의 아래 부분은 면치기를 통해 변화를 주었고, 양각장식 부분에는 빨간색유와 녹색유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작 품 3】 모란문양 컵과 접시 세트
백자토, 물레성형, 색유, 투명유, 산화소성
Plate $\varnothing 250 \times 15(h)$ mm, $\varnothing 200 \times 15(h)$, $\varnothing 125 \times 17(h)$, cup
 $\varnothing 72 \times 98(h)$ mm

모란을 모티브로 둥근 형태의 접시의 형태에 맞춰 곡선형의 문양으로 간략화하여 배치하였다.

컵 손잡이를 사이에 두고 대칭적 이미지의 모란 문양을 추가하여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접시의 사용 부분이 아닌 날개 부분에 문양을 전체적으로 새겨 넣어 실제 사용할 때의 이미지를 상상하여 제작하였다.

조각이 많이 들어간 만큼 유약은 한가지 색상으로 통일하여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자 하였다.



【작 품 4】 열매 문양 찻잔 세트
백자토, 물레성형, 색유, 산화소성

Plate $\varnothing 220 \times 15(h)$ mm, cup $\varnothing 78 \times 67(h)$ mm, saucer $\varnothing 98 \times 18(h)$ mm

열매 문양을 이용한 찻잔과 잔 받침, 플레이트로 구성된 찻잔 세트이다. 이 작품은 【표 6】의 문양화 과정 중 4번째 문양으로 제작되었다. 열매 문양 양각 장식과 직선 조각을 혼합하여 사용해 문양 디자인과 직선형의 미니멀한 조각의 혼합 사용을 통한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싶었으며 많은 장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색상의 유약으로 깨끗하게 마무리 하였다.



【작 품 5】 양귀비 문양 접시 세트
백자토, 슬립캐스팅, 색유, 산화소성
Ø19x30(h)mm, Ø16x38(h)mm, Ø117x65(h)mm

【표 6】의 문양화 과정 중 5번째인 양귀비를 활용한 접시 세트이다. 과거 미인을 상징하던 양귀비에 걸맞게 화려하고 볼륨감 있는 기형(器形)을 선택하였다. 굴곡이 많지 않고 단순한 형태의 외형을 가진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양귀비꽃의 대칭적 문양 구성이 더 강조되도록 곡선형의 외곽으로 기형(器形)을 변경하여 제작하였다.



【작 품 6】 수박 문양 사각접시
백자토, 슬립캐스팅, 색유, 산화소성
160x160x28mm

【표 6】의 문양화 과정 중 수박 문양을 가지고 제작한 사각 접시이다. 굴곡이 많은 잎과 줄기를 강조한 문양을 접시 외곽에 양각 장식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강한 덩굴의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사각 접시에 문양을 새겨넣었다. 굴곡이 많은 문양의 특성상 여러 가지 색상의 유약 사용이 아닌 단일 색상의 유약으로 시유하여 마무리하였다.



【 작 품 7 】 소국문양 저그 세트

백자토, 슬립캐스팅, 물레성형, 색유, 투명유, 산화소성

jug $\varnothing 80 \times 84(h)$ mm, cup&saucer $\varnothing 120 \times 17(h)$ mm, pot $\varnothing 52 \times 84(h)$ mm

국화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저그 세트이다. 향기로운 찻자리 이미지에 맞게 꽃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국화를 최대한 단순화시켜 도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물레성형 방식을 이용하여 미니멀한 외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잔 받침과 저그 아래에 보일 듯 말 듯 하게 국화 문양을 새겨넣었다. 문양장식은 보라색유와 녹색유의 조합으로 장식하였다.



【작 품 8】 사랑초 문양 보울
백자토, 물레성형, 색유, 투명유, 산화소성
Ø227x57(h)mm

전안보(奠雁深)에서 나타나는 초화문을 모티브로 사랑초 문양을 제작해 접시에 새겨넣었다. 색상의 강조로 화려함을 표현하고 단순화된 문양으로 소박한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음식이 담기는 부분이 아닌 날개 부분에 꽃과 줄기를 대칭적 구도와 반복된 표현으로 빼곡하게 채워넣어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작 품 9】 나팔꽃 문양이 담긴 화병
백자토, 슬립캐스팅, 투명유, 산화소성
Ø13x238(h)mm

【표 6】의 문양화 과정 중 나팔꽃 문양을 가지고 제작한 화병이다. 넓고 긴 기형(器形)에 대칭적 구성의 문양을 빼곡하게 채워넣었다. 【표 6】 주머니 유물 꽃잎부분의 강한 배색을 보고 나팔꽃잎 안쪽의 구획을 확실히 나뉘 문양을 디자인하였다. 형태는 양각 장식의 장식성을 고려하여 깔끔한 기형(器形)으로 선택하였고, 다채색의 유약장식이 아닌 깨끗한 단색 유약으로 담금시유하여 마무리하였다.



【작 품 10】 매미꽃 문양 찻잔 세트
백자토, 물레성형, 색유, 투명유, 산화소성
Plate \varnothing 170x40(h)mm, cup \varnothing 80x55(h)mm, jug
 \varnothing 86x86(h)mm

생활 자수에서 많이 나타나는 꽃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활용하여 제작한 매미꽃 문양의 찻잔 세트이다. 접시의 높은 굽 부분과 찻잔의 하단부, 거름망의 날개 부분에 단독형 문양장식을 활용하였고 주황색유와 녹색유의 조합으로 장식하였다



【작 품 11】 개화
백자토, 슬립캐스팅, 색유, 투명유, 산화소성
1520x3690x15mm

양각 장식을 활용한 타일을 이어 붙여 제작한 벽 장식이다. 다양한 꽃을 옷감에 화려하게 새겨넣은 활옷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특별한 날 입는 활옷의 이미지를 타일 벽 장식으로 제작하여 작품이 걸려있는 장소가 특별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크기가 다른 타일에 모란, 양귀비, 파초 형태의 장식을 새겨넣고 이를 다양한 배치로 구성해 보았으며 다채색의 유약을 사용하여 장식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Ⅲ. 결 론

조선시대의 민간 자수는 격식화되어있는 궁중 자수와는 달리 개인의 예술적 감성과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장식물로서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민간 자수에서 나타나는 해학성과 단순하고 간략화된 명료한 표현은 오늘날 많은 예술 및 디자인 분야에 적용하기에 충분한 조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형적 특질을 갖고있는 조선시대 자수 중 민수(民繡)라는 서민의 애환이 서린 자수의 문양적 특징을 이용하여 도자 테이블웨어 장식에 적용하였다. 조선 자수에 대한 고찰에 있어 궁수(宮繡)와 민수(民繡)의 자수 양식의 비교를 통하여 조선 자수의 폭넓은 다양성을 확인하였고 민수(民繡)에서 나타나는 독창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된 소재들을 활용해 문양화 과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문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민수(民繡)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추상성」, 「강한 배색」, 「간결한 구도 및 구획」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민수의 대칭 구도와 반복적 구성을 활용하여 장식구성의 주요요소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도자 장식으로의 표현에 있어서는 자수의 바느질과 땀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촉각적인 질감을 ‘양각조각’으로 표현함으로써 입체적인 도자장식표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자양각조각에 있어 몰드에 조각을 입히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제작 효율성 제고와 표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양각장식의 표현에 있어 색유의 색상조합에 의한 장식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유약에 의한 문양 드로잉 방법과 다채색의 색상 조합을 제시하였다.

이상, 조선 자수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양각 장식연구를 통해 문양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었고 도자테이블웨어 제작에 있어 유

용한 장식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양의 양각화 방법과 유약 장식을 위한 도구 실험에 중점을 두어 장식표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유남해, 『전통 문양』, 대원사, 1995
- 한영화, 『전통 자수』, 대원사, 1989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수실과 마음이 함께한 한국의 자수 어제와 오늘』, 미진사, 2016

<학위논문>

- 김은정, 「조선중기 이후 자수의 제작과 문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22

<학술논문>

- 이수철, 「한국전통자수의 발달과정과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8 No.2, 2002
- 김민정, 이상은, 「조선후기 자수문양에 나타난 해학성 연구」, 『한복문화』, Vol.11, No.2, 2008

<웹사이트>

-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ng.go.kr>)
- 서울공예박물관 (<https://craftmuseum.seoul.go.kr>)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http://www.sookmyung.ac.kr/sites/museum>)
- 구글 아트 앤 컬처 (<http://artsandculture.google.com/story/egXhtHdkPyNDLw>)

ABSTRACT

A Study on Tableware Using the Embroidery of Plant Patterns

So Susin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Since ancient times, people have created beautiful patterns with abundant imagination and talent based on nature.

These colorful patterns are also shown in Kyubang crafts of the Joseon Dynasty, and inside them, you can get a glimpse of the joys and sorrows of women's lives and society. This expression of life appears by converting to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humor.

In addition, the sewing shown in the embroidery and the remaining sweat form are not only practical to distinguish the area of the pattern, but also simple formative aesthetics can be felt in the small volume that quietly stands out, and it is thought that it has a good possibility as a formative expression element.

In this study, we paid attention to the aesthetic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s shown in the patterns of Joseon embroidery, and tried to propose

tableware by using it as a ceramic decoration technique.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patterns appearing in embroidery pattern decorat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literature, and based on this, a 'patternization process' that can be applied to ceramic tableware was presented.

In order to present an effective decorative expression technique through the pattern of Joseon embroidery, embossed decoration by carving technique was selected, and for more specific expression, a method of producing deformities by plaster method and drawing by glaze was proposed. In particular, in drawing by glaze, a method for combining and coloring colored oils was devised, and appropriate tools and techniques were presented.

A unique ceramic tableware was proposed by presenting a series of patterns and a decorative expression method called embossed decoration and glazed drawing.